

세계선수권 우승 한국 배드민턴 선수단 금의환향

‘여제’ 안세영, 응원봉 들고 ‘웃음꽃’

부상에서 돌아와 세계선수권대회 왕좌를 탈환한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뜻깊은 선물을 받았다.

박주봉 감독이 이끄는 한국 배드민턴 선수단은 25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귀국했다.

한국은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세계선수권에서 여자 단식 안세영(삼성생명), 여자 복식 백하나-이소희(이상 인천국제공항) 조의 금메달, 남자 복식 김원호-서승재(이상 삼성생명) 조의 동메달로 종합 순위 1위를 달성했다.

배드민턴 선수단이 통과한 입국장은 이른 새벽에도 불구하고 팬들과 가족들로 활기를 띠었다.

착륙 후 1시간이 지난 무렵 금메달을 목에 건 안세영을 비롯한 선수들이 등장하자 박수가 쏟아졌다.

약 8시간에 걸친 장거리 비행이었지만 선수단 모두 밝은 얼굴이었다.

김동문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은 금의환향한 선수들을 격려했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꽃다발을 전달한 다음 기념사진을 남겼다.

김원호-서승재, 안세영, 백하나-이소희, 박 감독이 차례로 취재진과 인터뷰에 나선 가운데 선수들은 일주일 만에 만난 가족들과 포옹하며 화포를 쏘았다.

특히 안세영은 셔플콕이 들어간 응원봉을 선물 받아 환한 미소를 짓기도 했다.

세계선수권이라는 큰 대회를 마치고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세계선수권대회를 마치고 귀국한 안세영 등 한국 대표팀 선수들이 25일 오전 인천공항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자 단식 안세영 · 여자 복식 백하나-이소희 ‘금메달’

남자 복식 김원호-서승재 ‘동메달’로 종합 1위 달성

아시안게임 준비 속 세계선수권 성과로 자신감 내비쳐

고 돌아온 선수들은 달콤한 휴식을 취한 뒤 내달 열릴 중국 마스터스(수퍼 750)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준비한다.

박박한 일정 속 아시안게임을 준비해야 하지만 선수들은 세계선수권

에서 거둔 성과로 자신감에 찬 모습이었다.

안세영은 “아시안게임에서도 잃을 게 없다는 식으로 자신 있게 달려들면 상대도 긴장할 거라고 생각한다. 준비했던 대로 계속 나아갈 것”이라

고 힘줘 말했다.

백하나-이소희 역시 “세계선수권이 라는 큰 무대의 결승전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다가올 아시안게임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봤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박 감독은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금메달 1개, 동메달 1개) 이상의 성과를 올려서 기쁘다”며 “전 국민이 바라보는 아시안게임인 만큼 여러 가지 부담감을 잘 이겨내야 한다”고 전했다. /뉴시스

도, 산업계 전국체전서

전주 올림픽 유치 홍보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서 홍보부스 운영

대회 참가자 · 방문객 대상 유치 의지 알리

참여형 이벤트 등 통해 국내외 공감대 확산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각지에서 모인 산업 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전북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홍보에 나섰다.

25일 도에 따르면, 전북자치도는 지난 24일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열린 ‘제52회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 현장에서 전주 올림픽 · 패럴림픽 유치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대회 참가자와 방문객을 대상으로 전북의 올림픽 유치 비전과 의지를 알렸다.

이번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전주시와 공동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전국 단위 행사로,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열린다. 올해는 전국 31개 품질혁신자가 본선에 진출했으며, 행사 기간 약 7,00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도는 전국 각지에서 많은 참가자가 전북을 찾는 이번 대회를 전주 올림픽 유치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과 공감대를 넓힐 수 있는 기회로 보고 다양한 참여형 홍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홍보부스에서는 올림픽 종목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사격 체험 이벤트와 올림픽 유치 홍보대사 포토존을 운영해 방문객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었다.

도 관계자는 “이번 대회를 전주 올림픽 유치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이와 함께 부스 내 대형 화면을 통해 올림픽 유치 홍보영상을 상시 송출하고, 홍보물과 기념품을 배부하며 전국에서 모인 참가자들에게 전북의 올림픽 비전과 의지를 적극 알렸다.

김종필 전북특별자치도 하계올림픽 유치대장은 “전국 각지에서 많은 참가자들이 방문하는 국가 단위 행사를 활용하여 전주 올림픽 · 패럴림픽을 향한 전북의 도전과 의지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전국 주요 축제와 스포츠대회, 대규모 행사 등 국민과 직접 만날 수 있는 현장을 찾아 올림픽 유치의 필요성과 비전을 알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앞으로도 다양한 전국 단위 행사와 연계한 현장 홍보를 비롯해 SNS 캠페인, 참여형 이벤트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올림픽 유치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올 프로야구 잔여 105경기 일정 확정... 10월 7일까지 편성

2026시즌 KBO리그 잔여 경기 일정이 확정됐다. 추후 큰 변수가 없다면 올 시즌 정규리그는 10월 7일까지 진행되는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5일 2026 신한 올 KBO리그 정규시즌 잔여 경기 일정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에 편성된 경기는 아직 일정이 잡히지 않은 45경기와 우천순연 등으로 재편성이 필요한 60경기를 더해 총 105경기다. 잔여 경기는 10월 7일까지 치러진다.

리그 규정 21조에 따라 다음 달 1일

아시안게임 기간 이후 9월 29일부터 더블헤더 편성

부터 14일까지 경기는 평일 오후 6시 30분, 주말 및 공휴일엔 오후 5시에 시작된다.

리그 규정 21조에 따라 9월 1일부터 14일까지는 평일 오후 6시30분, 주말과 공휴일 오후 5시에 경기가 시작된다.

9월 15일부터는 평일 오후 6시30분, 토요일 오후 5시, 일요일과 공휴일 오후 2시로 경기 개시 시간이 당겨진다. 다만 추석 연휴인 9월 24~27일엔 연

휴 기간 원활한 이동을 고려해 모든 경기가 오후 5시에 시작한다.

아울러 9월 28일까지 열릴 예정인 경기가 우천 등의 사유로 취소되면 우선 기존에 지정된 예비일에 경기를 배정한다. 단, 9월 21일 예비일은 9월 19~20일 경기가 취소됐을 경우에만 사용된다.

예비일이 없을 경우에는 9월 29일 이후 동일한 대진이 예정돼 있다면 해당 시리즈의 두 번째 경기를 더블헤더로

치른다. 동일 대진이 예정돼 있지 않은 경기는 추후 편성한다.

9월 29일 이후 취소되는 경기도 우선 기존 예비일에 배정한다. 예비일까지 없다면 다음 날 동일 대진이 예정돼 있는지에 따라 재편성 방식이 달라진다.

다음 날 같은 팀끼리 맞붙는다면 더블헤더로 진행되고, 다른 대진이라면 이후 동일 대진의 두 번째 경기를 더블헤더로 편성한다. 이마저도 어려울 경우 추후 일정을 잡는다.

다만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기간에는 더블헤더를 편성하지 않는다.

/뉴시스

33개 종목 총 574명 출전... 종합 7위 목표

순창군체육회(회장 손충호)가 오는 9월 4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진안군 일원에서 열리는 ‘제63회 전북도민체육대회’를 앞두고 24일 물통골 연회장서 선수단 결단식을 개최하며 필승의 각오를 다졌다.

이날 결단식에는 손충호 순창군체육회장을 비롯해 최영일 군수, 오수환 군의회 의장 등 주요 내빈과 체육회 임원, 종목별 회장 및 감독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출전 선수단을 격려했다.

행사는 출전 현황 보고를 시작으로 단기 수여, 인사말씀, 격려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공식 행사 이



후에는 만찬을 함께하며 선수단의 사기를 북돋웠다.

한편 이번 제63회 전북도민체육대회는 일반부와 학생부 총 39개 종목으로 치러지며, 순창군은 33개 종목에 임원 44명, 코치진 83명, 학생부 48명, 일반부 399명 등 총 574명의 선수단이 출전해 7위를 목표로 선의의 경쟁을 펼친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